

간호대학생의 우울 및 사회불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손미라¹, 김신향^{2*}

¹신성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²신성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The Effects of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on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MI-Ra Son¹, Sin-Hyang Kim^{2*}

^{1,2}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hinsu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우울과 사회불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간호대학생 316명으로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자료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행복과 우울, 사회불안은 부적관계, 행복에 우울과 사회불안이 부적영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해 간호대학생의 행복증진을 위해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우울, 사회불안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향후 간호대학생의 행복 영향요인을 보다 다양한 요인과 환경을 고려한 탐색적 연구가 계속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행복, 우울, 사회적 불안, 융합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of nursing students on happiness. The study subjects were 316 nursing students,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to November 2018.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showed that happiness and depression had negative effects on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had negative effects on happines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reduce the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in order to promote th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In the future, exploratory research should be continued consider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happin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and environments.

Key Words : Convergence, Happiness, Depression, Nursing students, Anxiet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행복에 대한 관점은 시대, 문화, 대상자에 따라 달라지며[1] 자신의 기준에 따라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 등의 외적 요인보다는 기쁨,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같은 내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2, 3].

대학생은 청소년 후기와 성인기 사이의 전환기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4], 다양한 영역의 책임과 역할의 변화로 인해 행복에 영향을 받고 있다[2]. 특히 간호대학생은 타 학과에 비해 엄중한 교과과정, 과도한 학업량, 엄격한 위계질서, 낮은 상황의 임상실습[5], 국가고시의 부담감과

*Corresponding Author : Sin-Hyang Kim(kimsin210@shinsung.ac.kr)

Received April 14, 2020

Accepted July 20, 2020

Revised May 27, 2020

Published July 28, 2020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공 선택으로 인해 부적응을 경험한다[6]. 이로 인해 간호대학생은 일반 대학생보다 스트레스가 많고, 주관적 행복감이 다른 전공의 학생들보다 낮게 보고되고 있다[6].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은 대학생활적응[7]과 미래의 직업적 영역에 정적인 영향력을 끼쳐[8] 보다 긍정적이고 활기찬 간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9]. 우울과 사회불안은 성인기 초기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서적 문제로 20대 성인 초기 우울의 유병률이 3.0%이었다[10]. 우울은 대학생의 행복을 위협하는 요인이며[4, 11, 12],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11], 인지, 정서 및 신체적 영역에 기능장애를 초래하거나 다른 정신장애과도 연결될 수 있고, 심해지면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다[13].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우울수준이 289명중 중증 우울군이 35%로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 이러한 결과에 의해 간호대학생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인 요인인 우울과 사회불안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회불안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느껴지는 전반적인 불안과 두려움으로[14]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력[15]과, 행복의 간접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16]. 대학생의 사회불안은 낮은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7]. 간호대학생은 팀 과제 발표, 실습 평가, 디브리핑 및 임상실습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과 평가를 받아야하는 상황은 잠재적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18, 19].

대학생의 우울과 사회불안이 행복의 예측 요인으로 보고되었으나[3, 12, 15],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행복과 관련된 변인은 스트레스, 대인관계, 전공만족도[20], 성격 특성[21],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7] 등이 보고되었지만, 우울과 사회불안이 행복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우울과 사회불안은 20대 가장 빈번한 정신건강 문제이며[10], 사회불안 장애자의 1/3 정도가 우울을 가지고 있어[14], 간호대학생의 우울과 사회불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우울, 사회불안, 행복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나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행복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우울, 사회불안이 행

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우울, 사회불안, 행복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사회불안, 행복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우울, 사회불안, 행복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대상자의 우울, 사회불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우울, 사회불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C도 D시의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재학생이며 우울이나 사회불안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하였다. 대상자의 표본 수는 G*Power 3.1.9.4를 활용하여 일원분산분석은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2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 2개(우울, 사회불안)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10명, 다중회귀분석은 중간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 2개로 하였을 때 107명이 산출되었다. 모든 분석방법을 만족하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330부를 배부하여 324부를 회수하였으나 응답이 불성실한 8부를 제외하고 최종 316부를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행복

행복은 Hills와 Argyle (2002)[22]이 개발하고 Choi와 Lee (2004)[23]가 번안한 옥스퍼드 행복 설문지(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9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hoi와 Lee (2004)[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 본 연구는 .96이었다.

2.3.2 우울

우울은 Spitzer, Kroenke 과 Williams (1999)[24]이 개발하고 Park, Choi, Choi, Kim과 Hong (2010)[25]이 번안·타당화한 한국어판 우울 선별도구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9개 문항으로 2주간 경험한 우울 증상이 ‘없었다’(0점)에서 ‘거의 매일’(3점)까지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Park 등(2010)[25]의 .81, 본 연구는 .84이었다.

2.3.3 사회불안

사회불안은 Watson과 Friend (1969)[26]이 개발하고 Lee와 Choi (1997)[27]가 번안·타당화한 한국판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8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이다. 긍정적인 문항은 역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와 Choi (1997)[27]의 Cronbach's α 는 .92, 본 연구는 .93이었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았으며(IRB No. SM-201806-046-2), 자료수집 기간은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2018년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가 학생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위해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연구 목적, 설문지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여 편의 표집 하였다. 설문지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언제든지 연구 중단을 원할 경우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설문 응답 시간은 약 15분으로 하였다.

2.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IBM SPSS/WIN 24.0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요변수(우울, 사회불안, 행복)의 정도는 기술통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 test,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행복의 영향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4세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여학생이 281명(88.9%), 남학생이 35명(11.1%) 차지하였다. 학년은 1학년(30.1%)이 가장 많았다. 학비

Table 1. Difference of Depression, Social Anxiety,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Categories		n (%)	Depression		Social anxiety		Happiness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Male	35 (11.1)	0.73±0.68	1.44 (.151)	2.90±0.64	0.87 (.383)	3.48±0.72	0.67 (.506)
	Female	281 (88.9)	0.60±0.48		2.82±0.51		3.39±0.51	
Grade	1st	95 (30.1)	0.56±0.46	1.19 (.313)	2.79±0.47	2.10 (.101)	3.45±0.50	2.26 (.082)
	2nd	76 (24.1)	0.63±0.56		2.92±0.63		3.37±0.54	
	3rd	71 (22.4)	0.70±0.51		2.89±0.50		3.28±0.60	
	4th	74 (23.4)	0.56±0.51		2.73±0.48		3.50±0.69	
Tuition fee	No	145 (45.9)	0.56±0.48	-1.47 (.143)	2.79±0.51	-1.21 (.227)	3.46±0.53	1.67 (.096)
	Yes	171 (54.1)	0.65±0.53		2.86±0.54		3.36±0.55	
Major satisfaction	Good ^a	107 (33.9)	0.45±0.43	13.93 (<.001) a<b<c	2.69±0.48	10.07 (<.001) a<b<c	3.63±0.54	25.48 (<.001) a>b>c
	Medium ^b	178 (56.3)	0.64±0.48		2.86±0.52		3.36±0.48	
	Poor ^c	31 (9.8)	0.96±0.70		3.15±0.54		2.93±0.50	
College life adaptation	Good ^a	117 (37.0)	0.43±0.42	29.75 (<.001) a<b<c	2.58±0.45	23.79 (<.001) a<b<c	3.68±0.48	43.98 (<.001) a>b>c
	Moderate ^b	181 (57.3)	0.66±0.48		2.96±0.49		3.30±0.47	
	Poor ^c	18 (5.7)	1.30±0.62		3.06±0.73		2.68±0.55	
Academic achievement	Good ^a	44 (13.9)	0.33±0.32	30.95 (<.001) a<b<c	2.51±0.41	12.24 (p<.001) a<b<c	3.83±0.47	28.74 (<.001) a>b>c
	Moderate ^b	184 (58.3)	0.53±0.46		2.83±0.48		3.43±0.50	
	Poor ^c	88 (27.8)	0.93±0.53		2.98±0.57		3.14±0.51	
Interpersonal Satisfaction	Good ^a	154 (48.8)	0.45±0.42	25.19 (<.001) a<b<c	2.61±0.45	33.56 (<.001) a<b<c	3.64±0.49	36.60 (<.001) a>b>c
	Moderate ^b	153 (48.4)	0.73±0.51		3.02±0.49		3.20±0.47	
	Poor ^c	9 (2.8)	1.36±0.70		3.34±0.67		2.87±0.69	
Religion	Yes	143 (45.3)	0.60±0.49	0.48 (.632)	2.84±0.54	0.24 (.810)	3.37±0.56	-1.22 (.222)
	No	173 (54.1)	0.62±0.52		2.82±0.51		3.45±0.52	

마련은 필요한 경우(54.1%)가 불필요한 경우(45.9%) 보다 많았다. 전공만족도는 보통(56.3%), 대학생활적응도는 보통(57.3%), 학업성취도는 보통(58.3%), 대인관계만족도는 만족(48.8%)이 가장 많았다(Table 1).

3.2 우울, 사회불안 및 행복의 정도

간호대학생의 우울은 0.61 ± 0.51 점, 사회불안은 2.83 ± 0.52 점이었다. 사회불안의 하위 영역인 회피행동은 3.01 ± 0.56 점, 불편감은 2.69 ± 0.57 점, 행복은 3.41 ± 0.54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Correlation and level of depression, social anxiety, and happiness

Variables		Mean ±SD	Happiness	Depression
			r (p)	r (p)
Happiness		3.41 ±0.54	1	-.50 (p<.001)
Social anxiety	Avoidance	3.01 ±0.56	-.33 (p<.001)	.19 (p<.001)
	Distress	2.69 ±0.57	-.32 (p<.001)	.35 (p<.001)
	Total	2.83 ±0.52	-.34 (p<.001)	.30 (p<.001)
Depression		0.61 ±0.51	-.50 (p<.001)	1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사회불안, 행복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전공만족도($F=13.93$, $p<.001$), 대학생활적응도($F=29.75$, $p<.001$), 학업성취도($F=30.95$, $p<.001$), 대인관계만족도($F=25.19$, $p<.001$)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불안의 차이에서도 전공만족도($F=10.07$, $p<.001$), 대학생활적응도($F=23.79$, $p<.001$), 학업성취도($F=12.24$, $p<.001$), 대인관계만족도($F=33.56$, $p<.001$)에서 유의하였다. 행복은 전공만족도($F=25.48$, $p<.001$), 대학생활적응도($F=43.98$, $p<.001$), 학업성취도($F=28.74$, $p<.001$), 대인관계만족도($F=36.60$,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도, 학업성취도, 대인관계만족도가 불만족, 보통, 만족 순으로 우울과 사회불안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행복은 만족, 보통, 불만족 순으로 행복 점수가 높았다(Table 1).

3.4 우울, 사회불안, 행복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행복과 우울($r=-.50$, $p<.001$), 회피행동($r=-.33$, $p<.001$), 불편감($r=-.32$, $p<.001$), 사회불안

($r=-.34$, $p<.001$)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우울과 회피행동($r=.19$, $p<.001$), 불편감($r=.35$, $p<.001$), 사회불안($r=.30$, $p<.0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2).

3.5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행복에 미치는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여($F=75.92$, $p<.001$)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충족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는 .91,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0으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산성(Multicollinearity)은 없었다. Durbin Watson 값이 1.82로 2에 가까워 오차항 간의 자기상관성이 없었다. 분석결과는 우울($\beta=-.42$, $p<.001$), 사회불안($\beta=-.28$, $p<.001$) 순으로 행복에 부적 영향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32%였다(Table 3).

Table 3. Influencing factors on happiness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3.73	0.05		32.71	<.001
Depression	-.44	0.51	-.42	-8.56	<.001
Social anxiety	-.29	0.50	-.28	-5.87	<.001
Adjusted, $R^2=.32$, $F=75.92$ (<.001), Durbin watson=1.82, VIF=1.10, tolerance: .9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행복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였다.

첫째, 우울, 사회불안, 행복 등의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우울은 평균 0.61점으로 나타나 Kim (2017)[12]의 일반대학생 0.69점보다 낮은 반면, 본 연구와 동일하게 4점으로 구성된 Beck 우울 척도로 의대생 및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2013)[3]의 결과 0.36점보다는 높게 나타나 지속적인 추적연구가 필요하다. 사회불안은 2.83점으로 Cho 등(2017)[18]의 간호대학생 사회불안 2.98점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선행연구에서 학업성취도 높을수록 사회불안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9]. 따라서, 본 연구의 학업성취도 만족도가 Cho 등(2017)[18]의 연구보다 높게 나타나 사회

불안 수준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회불안의 하위 영역 중 회피행동(3.01점)이 불편감(2.69점)보다 높았는데, 이는 발표나 토론 등의 사회적 상황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회피행동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28].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의 행복 수준은 3.41점으로 Cho[2]의 3.52점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일반대학생의 행복수준은 4.35점이었다[12].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은 엄격한 교육과정과 1000시간이나 되는 임상실습으로 인해 행복의 수준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과 사회불안의 차이에 서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도, 학업성취도, 대인관계만족도 등에 유의하여, 불만족할수록 우울과 사회불안도가 높았다. 이는 Kwon 등(2017)[11], Seol 과 Kim (2018)[2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반면, 행복은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도, 학업성취도, 대인관계만족도에 만족할수록 행복 수준이 높았다. 이는 간호학 전공이 자신의 적성에 맞다고 인지하는 경우 행복 정도가 높다[9]는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취업률만을 고려하여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전공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진로 지도가 필요하다[6]. 그리고 학업성취도는 대학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4] 대학생의 진로나 취업에 실제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1],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대인관계만족도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행복의 중요한 영역으로 친구, 선후배, 대학 내 교수 혹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넓혀갈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20]. 본 연구의 차이점점을 통해서는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도, 학업성취도, 대인관계만족도가 향상 될 시 우울과 사회불안도가 감소되고, 행복의 수준이 증가 할 수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이 낮아 행복 점수가 높다고 보고되었으나[1, 2, 3, 7]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추후에는 행복과 성별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행복은 우울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선행연구[3, 4, 12]와 일치하였다. 행복과 사회불안 역시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선행 연구가 없어 비교에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 추적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행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 사회불안 순이었다. 이는 선행연구[3, 12]와

동일하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우울은 간호 대상자의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다[11]. 따라서 국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게 될 미래의 간호사의 우울에 대한 적극적 중재와 관리가 요구된다. 간호대학생에게 효과적인 우울 중재를 위해서 체계적인 우울 선별 검사를 통하여[3] 필요 시 언제든지 상용할 수 있는 전문 기관과 인력의 유기적인 관계 구축이 있어야 한다[12]. 또한 우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상황을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낙관성[6], 긍정심리강화 프로그램[11]을 교과과정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

사회불안은 대학생활적응과 이후의 사회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17], 간호 교육자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을 비롯하여 사회불안도를 높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19]. 또한 사회불안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 사회적 기술과 대인관계만족도[10], 사회적지지[15]를 활성화하여 사회불안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간호대학생의 행복증진을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외 활동에 우울과 사회불안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다학제적인 시스템 연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정서적인 주요변수를 자기보고식 으로서만 측정하였기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우울, 사회불안, 행복의 수준 파악과 행복 영향요인과 관련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우울과 사회불안이 행복에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행복증진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우울, 사회불안이 행복에 부적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행복증진을 위해서는 우울과 사회불안을 감소시키거나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언은 간호대학생의 행복 영향요인을 보다 다양한 요인과 환경을 고려한 탐색적 연구가 계속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M. J. Park & D. N. Oh. (2017). Effects of communication skill on interpersonal satisfaction and subjective happiness amo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11), 423-434.
<https://doi.org/10.5392/JKCA.2017.17.11.423>
- [2] M. J. Cho. (2016). The factors related to happines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ic Social Nursing Education*, 22(2), 182-190.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2.182>
- [3] J. W. Kim, D. H. Han, Y. S. Lee, K. J. Min, J. Y. Park & K. S. Lee. (2013). The effect of depression, anxiety, self-esteem, temperament, and character on life satisfact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52(3), 150-156.
- [4] E. H. Seo, S. G. Kim, S. H. Kim, J. H. Kim, J. H. Park & H. J. Yoon. (2018).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among university students: A cross-sectional study in Korea. *Annals of General Psychiatry*, 17(1), 1-9.
<https://doi.org/10.1186/s12991-018-0223-1>
- [5] J. W. Park, & M. S. Choi. (2009). A study on self consciousnes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3), 351-360.
- [6] J. Y. Kim & Y. S. Park. (2015). The factors related to happines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1), 545-559.
- [7] S. O. Kim. (2016). Influence of positive thinking and subjective happiness on school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0(3), 395-404.
<http://dx.doi.org/10.5932/JKPHN.2016.30.3.395>
- [8] S. Ghezalbash, F. Rahmani, H. Peyrovi & M. Inanloo. (2015). Social anxiety in nursing students of Tehran Universities of Medical Scienc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 Medical Education*, 4(1), 85.
<https://doi.org/10.15171/rdme.2015.014>
- [9] J. H. Kim & H. O. Jeon. (2016).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Focused on psycho-social factors.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5(2), 123-132.
<https://doi.org/10.12934/jkpmhn.2016.25.2.123>
- [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amsung Seoul hospital. (2020, January 20). 2016 The epidemiological survey of mental disorders in Korea. Retrieved from <http://www.ndsl.kr/ndsl/search/detail/report/reportSearchResultDetail.do?cn=TRKO200300000240>
- [11] S. H. Kwon, H. K. Son & K. M. Kim. (2017).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3), 1685-1697.
- [12] O. Kim. (2017). The effects of depression on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Studies on Life and Culture*, 46, 383-422.
- [13] Y. K. Kwag. (2014). Comparison of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according to depression severity among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4(2), 125-134.
<http://doi.org/10.14257/AJMAHS.2014.12.31>
- [14]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SM-5 Task Force.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15] N. R. Kim & K. H. Lee. (2015). The influence of need for approval, social support and social anxiety on life satisfaction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6(4), 245-264
<https://doi.org/10.15703/kjc.16.4.201508.245>
- [16] Y. H. Kim & Y. J. Lee. (2013).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validation of social anxiety, empathy, social skills, anger-expressive for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atisfaction affecting the euphoria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3), 1587-1604.
<https://doi.org/10.15703/kjc.14.3.201306.1587>
- [17] R. Sharma & P. Harma. (2015). A correlational study to assess the relation of anxiety and social phobia with academic performance of students in a selected nursing college, Ludhiana, Punjab.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7(2), 26-30.
- [18] O. H. Cho, K. H. Hwang & J. M. Lim. (2017). Influence of fear of evaluation, test anxiety, and social anxie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7), 56-66.
<https://doi.org/10.5392/JKCA.2017.17.07.056>
- [19] W. H. Jun & G. J. Lee. (2017). The role of ego-resilien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among South Korean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49, 17-21.
<https://doi.org/10.1016/j.nedt.2016.11.006>
- [20] Y. S. Kim & M. Y. Han. (2015).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index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1(5), 501-510.
<http://doi.org/10.11111/jkana.2015.21.5.501>
- [21] J. Milic, I. Skrlec, D. Milic Vranjes, M. Podgornjak, & M. Heffer. (2019). High levels of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croatian medical and nursing students and the correlation between subjective happiness and personality traits. *International Review of Psychiatry*, 31, <https://doi.org/10.1080/09540261.2019.1594647>
- [22] P. Hills & M. Argyle. (2002).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A compact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7), 1073-1082.
- [23] Y. W. Choi & S. J. Lee (2004). The influence of

-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al awareness on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9(4), 887-901
- [24] R. L. Spitzer, K. Kroenke & J. W. Williams.. (1999). Validation and utility of a self-report version of prime-md: *The PHQ primary care study*. *JAMA*, 282(18), 1737-1744.
- [25] S. J. Park, H. R. Choi, J. H. Choi, K. W. Kim, & J. P. Hong. (2010).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Anxiety and Mood*, 6(2), 119-124.
- [26] D. Watson, & R. Friend.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4), 224-257.
- [27] J. Y. Lee & C. H. Choi. (1997).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 version of social phobia scales (K-SAD,K-FNE).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6(2), 251-264.
- [28] K. S. Cha, W. H. Jun & S. S. Hong. (2014).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ocial anxie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7), 324-333.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7.324>
- [29] B. K. Seol, & H. K. Kim. (2018).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anxiety in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12), 305-326, <https://doi.org/10.21509/KJYS.2018.12.25.12.3>

손 미 라(Mi-Ra Son)

[경력]



- 1984년 2월 : 국군간호사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1997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행정학 석사)
- 2014년 8월 : 한양대학교 간호학(간호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신성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중독정신간호
- E-Mail : sml61@naver.com

김 신 향(Sin-Hyang Kim)

[경력]



- 2014년 8월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문학 박사)
- 2018년 2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8년 8월 ~ 현재 : 신성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정신보건

- E-Mail : kimsin210@nate.com